

海外留學生의 실태와 문제

金 義 榮
(檀國大 英語英文學科)

自費留學 自律化 정책 이후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교육제도의 構造的 矛盾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逃避性 留學 붐에 휩쓸려 왔다. 우리 대학의 열악한 教育與件은 치밀한 自救策의 講究 없이 이들을 방치하거나 부추겨 온 것은 아닌가? 국제사회에까지 物議를 빚고 있는 海外留學生의 實態와 改善策을 살펴 본다.

1

제 6 공화국 정부의 留學自律化 조치로 해외유학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러한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다양한 人的 資源의 확보,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尖端技術의 迎入으로 2천년대 조국의 청사진을 펼쳐 보겠다는 정부의 의욕적인 결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留學自律化 施策을 통하여 국제화시대에 부응한다는 본래의 취지나 목적과는 달리 요즘의 留學風俗圈은 사치·도피 등의 부조리와 탈법행위로 얼룩지고 있다. 또한 早期留學 붐을 타고 크게 늘어난 유학 알선업체들이 탈법 행각을 일삼으며 變則的 逃避留學을 조장하고 있다. 대학입시에 낙방해서 오갈 데 없어 떠나는 逃避性 海外留學이 자녀의 장래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의 여러 글과 사례들이 신

문지상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약 석 달 전 한 유학업체의 주선으로 미국으로 유학간 고교생들이 韓人 학생들로만 가득 찬 어느 시골 分校에 불모신세로 수용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마닐라의 한 英語學院에서 수학하고 있던 資格不實의 한국인 유학생 25명이 移民法 違反으로 필리핀 정부에 의해 강제 구금되는 등 도피성 유학이 보여주는 허망한 추태의 한 장면도 있었다. 최근 MBC TV가 방영한 일본 동경 유홍가 일대에서 맹활약중인 한국 호스티스들의 현황에 관한 르포에서도 상당수의 韓人 여성 접대부들이 일본으로 유학간 어엿한 留學生 신분이라는 부끄러운 보도도 있었다. 더욱 가슴 아픈 보도는 지난 7월 逃避性 留學으로 미국에 체류중이던 韓人 高校卒業生 한 명이 현지생활의 부적응에 대한 압박과 실력 부족에서 오는 열등감을 감당하지 못하여 권총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일기 시작한 早期英才教育, 그리고 어학연수라는 이름아래 늘어난 이른바 逃避性 外國留學의 副作用이 지금에 와서 하나씩 참담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逃避性 留學이 과연 子女教育에 어떤 보탬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 같다.

필자는 현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도피성·사치성 變則留學의 實相과 問題點 등을 진단해 보고, 건전한 留學活性化를 위한 개선책을 開陳해 보고자 한다.

2

오늘날 國際社會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기초로 하여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國際社會에서 생존할 適應力을 기르기 위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海外留學制度는 다변화되고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人的 資源의 確保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다가 올 2천 년대의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국가의 百年大計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우리로서는 늘어나는 留學需要를 적절히 수용하면서도 副作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실한 努力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海外留學制度는 사회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자격규정, 절차, 시험 등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식으로 일기응변적인 修正을 거듭해 왔다. '80년대 이전의 留學政策은 規制一邊倒로서 소수의 부유층 자녀 아니면 國費留學生試驗에 합격한 극소수의 영재들에게만 그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제법 달리가 모이기 시작하자 政府는 海外旅行 자유화 조치를 斷行하였고 또 그 일환으로 教育 開放政策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5공화국 정부는 '81년 8월 自費留學資格試驗을 폐지하고, 성적이 上位 20% 이내인 高卒 학생 및 大學 在學生은 누구나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自由化는 그 본래의 目的과는

달리 유학생 質의 저하, 사치성·도피성 유학의 성행, 이를 도와주는 유학 알선업체의 탈법행위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심각한 副作用이 초래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정부는 이러한 파행성 유학을 막기 위하여 自費留學試驗을 부활시켜 留學條件을 強化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서 1년 이상을 修了한 자이어야 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성적이 上位 10% 이내에 들어야만 留學資格을 받게끔 하였다.

그러나 제6공화국 정부는 自費留學制度를 훨씬 약화시켰다. 대외 경제여건의 호전과 社會條件의 발전적 변화에 힘입은 듯 '88년 4월부터 自費留學條件으로서 外國語 試驗만 그대로 두고 高卒 이상이면 누구나 留學資格을 부여받을 수 있게 그 조건을 약화시켰다.

과거에 발생했던 副作用에 대처한 아무런 制度의 補完策 없이 결정된 제6공화국의 조치 이후 留學自律化로 인한 수 많은 弊弊들이 이제 더욱 능란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제등장하기 시작했다. '80년대 초와 같이 도피성·사치성 變則留學이 다시 早期英才教育·語學研修라는 미명으로 각색되어 學問의 能力은 제쳐둔 채 너도나도 돈만 믿고 逃避留學을 떠나고 있다. 이같은 자격 부실자들의 變則留學은 대부분 극성스런 학부모들의 過剩 教育熱과 “내 자식도 外國에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誘示欲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大學入試에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또 시험에 낙방해서 오갈 데 없는 자녀들을 둔 부모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유학보낸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留學이라는 것은 무지개 빛 浪漫이 아니라 외로움과 고통을 수반하는 苦惱의 길이다. 이러한 유학의 實相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만 가지고 유학을 가게 되면 一流大學 博士學位가 저절로 손에 굴러들어 온다는 착각을 하기도 한다.

사실 外國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돈만 있다고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성공의 3대 요건으로서 돈, 學問的 能力, 그리고 확고한 意志를 꼽는다. 筆者는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확고한 意志가 아닌가 한다. 확고부동한 精神力만 있다면 財政的·學問的 劣勢는 아

르바이트나 노력 등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變則的으로 留學 간 대부분의 부유층 자녀들은 돈만 앞세우며 留學生 社會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LA의 고급 룸살롱은 週末이면 韓國에서 유학 온 소위 '逃避族'들이 몇 백 달러의 팁을 뿌리며 흥청망청이나 노관을 벌인다든지, 美貨로 7만 달러나 하는 新型 BMW 차를 몰며 금발의 백인 미녀와 幻想의 로맨스를 즐기는 등 청소년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꼴불견들을 演出하고 있다. 심리적 외로움과 스트레스, 언어 장벽에서 오는 文化衝擊 등으로 깊은 挫折感에 빠져 다리화나·마약 등의 藥物을 즐기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학생 증에는 심지어 속제조차도 다른 학생에게 돈을 주고 떠맡기는 일이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痛歎할 노릇인가? 이러한 逃避留學의 非理와 부작용이 연이어 매스컴을 통하여 特筆되고 社會에서 批判의 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성 학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를 변칙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제6 공화국 留學自由化 조치 후 高校卒業生 留學需要는 폭증하는 추세이다. 서울시 教育廳에 따르면, 서울 시내 高校 재학생 및 졸업생 중에서 國內進學을 포기하고 해외로 유학 간 학생은 '86년 27명, '87년 32명, '88년에는 92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자유화 조치 후 급격히 늘어나 '89년 615명, '90년에는 650명이나 된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이들은 모두 합법적인 留學節次를 밟은 학생들의 수치를 기준으로 증가의 정도를 集計한 것일 뿐, 觀光旅券 등을 이용하여 도피성 유학을 떠나고 있는 無資格者의 수를 합하면 그 增加率은 엄청날 것이다.

이러한 變則的 留學行脚은 입시에 낙방한 고교생들 사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다. 大學 在學中 留學을 떠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당초 대학에 진학할 때 자신의 適性이나 進路에 맞는 大學과 學科를 선택하기보다는 우선 불고 보자는 다급한 생각으로 成績에 맞는 그리고 합격할 수 있는 大學과 전공 학과를 선택하여 결국에는 전공에 興味를 잃어버린, 획일적인 대학입시 제도의 피해자들이다. 그리하여 適性

에 맞지 않는 國內 大學의 專攻을 포기하고 美國 現地大學의 교육여건이나 학생 수준, 그리고 새로 선택할 전공에 대한 事前知識도 없이 무작정 留學을 떠나고 있다. 막연한 기대와 단편적 지식만 가지고 유학간 그들은 現地에서 언어, 수학적능력, 문화충격 등으로 뜻하지 않은 또다른 難關에 봉착하여 學業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적절할 수준의 학교를 찾아 여기 저기 옮겨 다니는 '철새성 유학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 이같은 變則的 海外留學 붐을 타고 留學斡旋業體가 많이 늘어났다. 세두서에 사업자 등록 신고만으로 門을 열 수 있다는 손쉬움 때문인지 雨後竹筍처럼 생겨나고 있는데, '88년 이전에는 30여 개소이던 것이 현재 150여 개소가 政府 教育機關의 아무런 통제나 指導監督도 받지 않은 채 盛業中에 있다. 이 중에는 脫法업체들이 많아 無資格 학생들에게 逃避性 留學을 알선해 주고 巨金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高校卒業者 이상의 학생이나 特技者 출신들만 留學할 수 있도록 教育法에 明示되어 있어 사실상 早期留學은 금지되어 있는데도 'Toefl 없이도 美國留學 가능', '中·高校를 외국에서 졸업하던 大人 완전 보장' 등의 宣傳으로 변칙 유학을 부채질하고 있다. 즉, 이들 업체는 海外旅行自由化 이후 쉽게 旅券을 얻을 수 있는 허술한 法網을 이용, 觀光비자로 海外에 보내는 便法을 쓰든가, 아니던 便法 I-20 폼을 발급하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미국 대학 입학허가서 I-20 폼을 구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留學院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缺格事由를 지녔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I-20 폼을 변조·남발하고 巨額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不法 留學斡旋業體는 현지의 教育環境을 학부모들에게 상세히 전해주지 않고 돈만 있으면 편만한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甘言利說로 거액을 챙기고 있다. 이처럼 詐欺性 留學斡旋業體의 농간에 속아 낭패를 본 事例는 비일비재하다.

알선 업체의 소개로 LA에 도착한 어느 留學生은 학교에 가보니 아랍인들이 주말에만 공부하는 전수학원이어서 항의소동을 빚으며 학교를 옮겼다. 또한 美國의 移民法規를 제대로 알지 못

하여 I-20 폼을 발급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등록하여 공부하다가 ‘留學을 빙자한 不法移民者’로 낙인찍혀 強制 出國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不賃 留學斡旋業態는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韓人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 LA 나 뉴욕, 시카고 등지에도 많은 업체들이 문을 열고 있다. 現地 유학 알선업자들은 서울에 직접 와서 일간지에 早期留學 모집 광고를 낸 후 비자도 잘 나오지 않는 정체 불명의 교육 기관의 I-20 폼을 남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3

이렇게 物議를 빚고 있는 변칙적 유학이 성행하는 이유는 대체로 ‘어차피 좋은 大學에 가기 힘들 것같아서’, ‘과외 비용보다 유학 비용이 싸서’, ‘외국어 하나만 잘하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教育現實의 構造的 矛盾에서 비롯된 것이다.

原論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教育은 인간의 行動的 特性을 변화시키는 過程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이 가르침에 의하여 변화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참 교육을 具現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本質的 價値를 意圖的이고 計劃的인 研究를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참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教育構造가 人間의 尊嚴性·主體性·成長 可能性에 대한 信念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구조는 교육의 본질적 사상을 形象化하려는 努力보다는 “教育은 개인의 社會的 出世를 위한 手段이다”라는 機能的 價値를 중시하는 教育風潮에 의하여 支配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기능적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 현상은 여러 가지의 矛盾과 不條理를 초래하는 가장 根源的 要素로 작용해온 것이다.

教育이란 명목 하에 人間性을 말살하는 入試 위주 교육은 살아남기 위해 동료들끼리 치열한 競爭을 벌여야 하는 適者生存의 측면까지 유발

시켰고, 현재 돌의를 빚고 있는 도피성 변칙 유학도 極에 달한 우리 教育構造의 病弊가 낳은 副産物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教育環境의 體質的 改善이 선행되지 않는 한 逃避手段으로서의 海外留學은 계속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른 副作用 또한 꼬리를 물고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와 병폐를 근절·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4년제 대학에 가지 않아도 職業教育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專門大學을 졸업한 기술인·기능인들이 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政府의 教育政策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教育環境을 改善하지 않고는 早期留學의 弊端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海外留學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굳이 ‘global village’라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전자매체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국제간 交流가 더욱 활발해질 21세기에는 치열한 國際競爭 속에서 조국의 未來를 책임질 다양한 人的 資源의 確保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外國留學은 국가적으로 우수한 人才養成의 차원에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도피성·사치성 유학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유학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여 건전한 留學을 活性化시켜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 方案으로 교육당국은 海外留學만을 전문적으로 管理·監督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留學 自律化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났으며 변칙적 조기유학 붐이 일기 시작한 지도 수 년이 지났다. 그동안 新聞紙上 등 여러 경로를 통해 留學制度의 문제점을 감지했을 教育當局의 수수방관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항상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야 對策을 세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문제점을 미리미리 찾아 대처하는 능동적 자세가 촉구된다.

또한 유학 알선 업체들도 일련의 사태를 본보기로 하여 覺醒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양심적으로 유학 업무를 代行해 주고 있는 업체와 실력있고 선량한 유학생들에게 더이상 엉뚱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들 역시 재학중에 學業을 포기하고

早期留學을 떠나는 학생들을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그들이 現地에서 부딪치게 될 언어장벽, 문화응역 등의 장애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事前指導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國內大學을 떠나는 그들이 질 높은 教育을 받고 두번 다시 대학·학과의 選擇에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現地學校에 대한 상세한 情報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각 대학은 留學生 事前指導를 위한 留學相談室이나 현지 言語能力의 배양을 위해 語學施設 및 人力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 재학중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 떠나는 학생들을 구제할 근본적 해결 방법은 國內大學의 修學與件을 전반적으로 擴充·改編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 제도 하에서는 일단 한번 大學이나 專攻學科를 선택하게 되면 轉學·轉科가 쉽지 않다. 美國 대학들의 공통된 특징은 轉學이 자유롭고, 자신의 適性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도록 誘導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만의 특수한 條件 때문에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무리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大學教育이 소수 英才教育에서 大衆教育의 概念으로 바뀐 현 시점에서 우리 대학들은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되풀이하다 보니 운영상 많은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러한 大學運營의 混亂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외국의 대학들이 오랜 歷史를 통하여 습득한 成敗의 산 經驗을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美國의 대학교육 제도 중 몇 가지 시사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美國의 대학은 대부분 入學條件이 國內의 경우보다 덜 까다롭고 轉科도 자유롭다. 또한 미국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適性을 무시한 채 名門大學에만 들어가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학생 자신도 학교의 有名度보다는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아 학교를 선택한다.

또하나의 특징은 대학의 選拔基準을 國家나 어느 特定機關이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우리와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1년에 6차례의 기회를 주어 고교 졸업생이 부담없이 시험을 치르게 하는 이른바 SAT나 GRE의 점수와 지도교수의 추천서, 자신이 작성한 자

기소개서, 그리고 성적증명서를 토대로 5~6명의 전형위원이 심사한 후 入學許可를 결정한다. 이 선발과정에서 特定機關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독자적인 選拔權을 가진다. 대학교수가 자신이 가르칠 학생들을 선정하는 데 어느 누구도 그 학교의 권한과 교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령 SAT 성적이 1600점 만점을 받은 학생일지라도, 또는 부모의 強勸에 못이겨 그 대학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거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원한 우등생들도 때로는 대학 측에서 입학을 불허할 수도 있다. 그와 반대로 SAT 성적은 다른 학생에 비해 뒤지지만, 課外活動이 인상적인 학생에게 特典이 부여될 수도 있는 것이 또한 미국 대학의 특징이다. 필자는 그들 대학의 이러한 장점들을 우리 상황에 맞게 한국적으로 體質化시켜 國內大學에 적용하는 것이 현재 대학교육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4

지금까지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早期留學에 대한 是와 非를 따져 보았다. 立場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뚜렷한 目的意識이나 각오없이 돈만 앞세우고 떠나는 海外留學은 자녀의 장래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努力에 의해 땀땀이 자신의 活路를 찾아야 하며, 이러한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亡國의 도피 유학은 더이상 용납될 수도 없고 간과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海外留學은 우리나라 현재 大學制度의 문제점을 타개하려는 일시적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次世代의 民族史를 책임질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엘리트 교육의 차원에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 대학들도 어차피 불어닥친 留學自由化 물결을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轉向의 입장에서 유학생이나 학부모들을 도와주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政府의 留學政策 또한 여러 가지 弊端에 미온적·수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國家 百年大計를 위하여 지속적·적극적인 자세로 轉換되어야 한다. ▣